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7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산상설교』 하권 제57장, 인쇄 369~38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24~27

> ❓ **나도 교회 다니고 은혜도 받는데, 내 신앙이 진짜인지 겉모양만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두 집 비유를 새 가르침으로 보지 않는다. 산상설교 전체를 마무리하는 논증의 마지막 장면이자, 자기기만을 경고하는 세 번째 장면으로 읽는다. 그는 먼저 두 사람과 두 집이 소원·장소·모양·시련까지 거의 똑같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다음 유일한 차이가 땅 밑의 기초에 있고,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지금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어리석은 사람'의 심성을 분석한다. 성급함, 지도를 무시함, 자기 생각만 믿음, 앞일을 따져 보지 않음이다. 이 분석을 참 신자와 '거짓 신앙고백자'에게 적용하면,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앉아 같은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천국을 원한다. 설교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당신의 최고의 소원은 구원의 유익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가?”

📜 절별 정리

📜 1. 이 비유의 자리: 산상설교 논증의 최종 결말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7장 12절까지 원칙을 다 세우신 뒤 그 진리를 적용하고 계신다고 본다. 13절부터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두 가능성을 내놓고, 그 선택 앞에 선 사람이 빠지기 쉬운 교묘한 유혹을 보여 주신다.

신념이나 열심과 활동에 속는 위험을 경고한다. 셋째가 두 집 장면(24~27절)이다. 여기서는 구원의 유익과 복만 구하고, 그것을 겉으로 가진 것에 안심하는 위험을 경고한다. 세 장면 모두 주제는 같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기기만이다. 대상도 같다. 교회 밖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1. 두 집 비유는 새 교훈이 아닌 논증의 결말이다
2. 13~29절은 좁은 문 앞 선택을 돕는 경고다
3. 세 장면: 외모, 열심, 겉으로 가진 복
4. 공통 주제는 듣기만 하는 자기기만이다
5. 대상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인들이다

> **마태복음 7:13~14**
> 두 문, 두 길이라는 선택의 틀을 세운다
>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 **마태복음 7:15~16**
> 첫 장면: 양의 옷에 속지 말고 열매로 알라
>
>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 **요한복음 7:24**
> 외모가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기준
>
>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7:21~23**
> 둘째 장면: 열심과 능력에도 “모른다” 하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4

셋째 장면: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2. 두 사람, 두 집은 거의 똑같았다

로이드 존스는 차이보다 닮은 점부터 짚는다. 두 사람은 같은 소원을 품었다. 가족과 편안히 살 집을 원했다. 두 집은 같은 장소에 섰다. 같은 비, 같은 홍수, 같은 바람을 맞았으니 서로 아주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주님이 기초 말고는 아무 차이도 언급하지 않으셨으므로, 설계·모양·문·창·굴뚝 위치까지 같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겉만 보면 두 집은 완전히 같아 보였다. 이 비유의 요점은 바로 그 닮음 속에 숨은 차이를 드러내는 데 있다.

1. 같은 소원: 편안히 살 집
2. 같은 장소, 서로 가까운 집터
3. 같은 설계와 같은 겉모양
4. 같은 비·창수·바람을 맞음
5. 다른 것은 땅 밑의 기초 하나뿐

마태복음 7:25

반석 위 집이 맞은 시련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27

모래 위 집도 똑같은 시련을 맞음, 같은 장소임을 보여 줌

>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 3. 차이는 미묘하다, 그러나 지금 분별할 수 있다

첫째 요점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차이가 뻔히 보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함정이 바로 이 생각이다. 로이드 존스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나 성경의 권위나 기적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심히 살필 때에야 드러나고, 그는 남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인다. 그렇다고 차이를 홍수가 나야만 알 수 있다고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고 쓸모도 없다. 그때는 손쓰기에 이미 늦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시간이 있을 때 차이를 찾아내 스스로를 지키게 하시려는 데 있다.

1. 참·거짓의 차이는 겉으로 뚜렷하지 않다
2. '뻔히 보인다'는 생각이 마귀의 함정이다
3. 거짓 선지자도 정통처럼 보일 수 있다
4. 홍수 때 알면 이미 늦다
5. 성령의 분별력으로 지금 구별할 수 있다

마태복음 7:15

양의 옷: 겉은 참된 것과 똑같다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요한계시록 3:18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분별은 은혜로 받는다

>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일서 2:20

거룩한 자에게서 받은 기름부음이 분별력을 준다

>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4.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심성

로이드 존스는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끌어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파지도 않았다. 그는 '어리석다'는 말을 열쇠로 삼아 그 사람의 특징을 넷으로 꼽는다. 첫째, 성미가 급해 지름길과 빠른 결과만 찾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음을 아는 경건한 사람은 다급해하지 않는다. 둘째, 건축의 법칙에 관심이 없다. 건축가나 설계도를 찾지 않고 “그저 집을 세워 보자”고 한다. 셋째, 자기 생각이 최고라 여겨 남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본다. 넷째, 앞일을 철저히 따져 보지 않는다. 시냇물이 넘친 것을 본 사람이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라”고 조언해도 물리친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과 교회사의 교훈에 무관심하고 제 방식대로 될 줄 아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반대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도를 구한다. 기분이나 열심에 떠밀리지 않으며,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

1. 어리석음 1: 성급함, 지름길만 찾음
2. 어리석음 2: 설계도와 법칙을 무시함
3. 어리석음 3: 내 생각이 최고라 여김
4. 어리석음 4: 앞으로 올 시련을 따지지 않음
5. 지혜: 모름을 인정하고 지도를 구함

> **누가복음 6:48~49**
>
>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파지 않은 사람의 대조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28:16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 성급함과 반대되는 경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3:14

지혜가 은과 정금보다 낫다, 지혜를 구할 이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 5. 두 집의 차이: 기초는 처음에 검토해야 한다

두 집의 차이에서 그는 두 가지를 끌어낸다. 하나는 검토할 때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집터를 고르고 기초를 놓는 초기 단계에서 감독해야 한다. 날림 공사하는 목수도 그때 살펴야 하고, 완공된 뒤에는 의미가 없다. 다른 하나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초 없는 집이 오히려 더 근사해 보일 수 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찮게 여겨지지만, 기초가 나쁘면 나머지도 모두 나빠진다. 게다가 시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온다. 피할 수 없으니 기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1. 점검의 때는 짓기 시작할 때다
2. 완공 후 점검은 늦다
3. 기초는 안 보여서 하찮아 보일 뿐이다

5.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다

> **고린도전서 3:11**
> 닦아 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 기초가 전부라는 근거
>
>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 **마태복음 7:25**
> 주추를 반석에 놓았기에 무너지지 않음
>
>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궁극적으로 집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 6. 거짓 신앙고백자는 교회 안에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분석을 영적 영역에 적용한다. 그는 청교도들이 말한 '거짓 신앙고백자'에 오늘 교회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청교도 시대와 복음적 각성 시대에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다. 윗필드와 웨슬리는 회심자를 모임에 받기 전에 먼저 시험했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위대한 시대와 웨일즈 장로교회 초기 백여 년도 마찬가지였다. 교회를 '성도들의 집회'로 여긴 모든 이들의 특징이었다.

이어서 그는 두 부류의 공통점을 하나씩 짚는다. 둘은 같은 장소, 곧 교회에 있고 같은 복음을 즐겁게 듣는다. 둘은 같은 것을 원한다. 죄 용서, 평안, 위로, 인도, 더 나은 삶, 영적 능력, 천국이다.

- 평안과 위로: 평안에 굶주린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찾듯 교회로 온다. 말씀은 듣지 않고 예배당 분위기에서 '마취제'를 얻는 사람도 있다.

- 좋은 삶: 에머슨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 밖에서도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 영적 능력: 사마리아의 시몬은 빌립의 기적에 감명받아 무리에 들어왔고,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다.
- 천국: 거짓 신앙고백자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는 그들이 같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사탄도, 신비적·마술적 현상도 거짓 평안과 위로와 안도감을 줄 수 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열한 제자와 겉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1. 거짓 신자는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2. 부흥기 교회는 회심자를 먼저 시험했다
3. 평안·위로·인도는 비신자도 원한다
4. 영적 능력 욕심도 육적일 수 있다(시몬)
5. 사탄도 거짓 평안을 줄 수 있다

> **사도행전 8:13**
> 시몬도 표적을 보고 믿고 세례받아 무리 안에 있었다
>
>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 **사도행전 8:18~19**
>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함, 능력을 탐하는 거짓 고백
>
>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 **요한복음 17:12**
>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나 겉으로는 제자와 같았다
>
>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마태복음 7:22~23

능력을 행하고도 확신하던 이들에게 “알지 못한다” 하심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짜로 속고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 7. 결정적 질문: 당신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만큼 닮았는데도 주님은 하나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하신다. 겉으로는 흐릿하지만 찾아보면 분명하고 틀릴 수 없는 차이다. 로이드 존스는 앞에서 분석한 어리석은 사람의 심성을 각자 자기에게 대 보라고 한다. 경고를 듣지 않는 성급함, 설계도에 대한 무관심, 다 안다는 자신감, 집 짓기에만 열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한다. 구원에서 오는 이익과 복만 얻으려고 열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는가. 그는 이것을 팔복의 넷째 복으로 다시 묻는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가?” 이 장은 이 질문으로 끝난다.

1. 차이는 흐릿해도 찾으면 분명하다
2. 어리석은 심성을 내게 대 보라
3. 복만 원하는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4. 시금석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갈망이다
5. 결국 의에 주리고 목마른가이다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참 신자를 가르는 마지막 질문

마태복음 7:26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기기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상태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 신앙고백자

청교도들이 쓴 말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교인을 가리킨다.

무의식적 위선자

남을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가짜 신앙에 머문 사람이다.

중생(거듭남)

성령께서 사람을 새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이다.

반석과 모래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초, 모래는 기초 없이 겉모양만 갖춘 신앙이다.

분별력(기름부음)

성령께서 주셔서 참과 거짓을 겉모습이 아니라 속까지 가려내게 하는 능력이다.

16~17세기 영국에서 성경대로 교회와 삶을 개혁하려 한 신자들로, 참 회심을 꼼꼼히 살폈다.

성도들의 집회
교회를 이름만 걸린 모임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는 이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두 집 비유는 산상설교 전체의 마지막 경고이고, 대상은 교회 안의 신앙고백자들이다.
-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장소·소원·겉모습·시련까지 닮았고, 차이는 땅 밑의 기초 하나뿐이다.
-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성령의 분별로 지금 찾아낼 수 있다. 홍수 때 알면 이미 늦다.
- 어리석음은 성급함, 지도 무시, 자기 확신, 앞일을 생각하지 않음이고, 지혜는 겸손히 배우고 깊이 파는 것이다.
- 마지막 시금석은 하나의 질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구원의 유익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가?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